

3위 도달한 '진격의 KIA' 어디까지 올라갈까?

KT·롯데와 6연전 '선두권 진출' 발판 노려
결과따라 2위 '두산 베어스'와의 순위 바뀔수도

어느덧 9월까지 오른 KIA 타이거즈가 더 높은 곳을 조준한다. KIA(37승2패)는 지난주 4경기에서 전승을 챙기며 키움 히어로즈(39승31패)를 제치고 3위에 등극했다. 리그가 중반으로 향하면서 투타가 안정을 찾은 모양새다. 지난 주 KIA의 팀 평균자책점은 2.50으로 10개팀 중 가장 좋다. 팀 평균 타율 역시 0.317로 1위다. 잘 던지고 잘 치니 자연스레 승리가 쌓였다. 나지완이 0.429(14타수 6안타)의 높은 타율을 자랑했고 최형우는 두 차례 결승타로 해결사 능력을

과시했다. 불펜에서는 필승조 박준표가 4차례 승리 경기에 모두 등판해 자책점 없이 2홀드를 챙겼다. 5할 승률도 버겁던 시기를 지나 어느덧 승패 마진이 +8이 된 6위 KIA는 6위 KT 위즈(34승1무33패), 8위 롯데 자이언츠(32승34패)와 6연전을 갖는다. 흐름상 롯데보다는 홈런포가 불을 뿜고 있는 KT가 걸림돌이다. 결과에 따라 두 경기 차로 추격 중인 2위 두산 베어스(40승28패)와의 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두산에도 중요한 일주일이다. 두산은 안방에서 키움과 격돌한

◇주간 프로야구 일정

▲28일~30일
한화-삼성(대구) KT-KIA(광주) LG-SK(문학) NC-롯데(사직) 키움-두산(잠실)
▲31일~8월2일
한화-LG(잠실) KIA-롯데(사직) 두산-NC(창원) SK-KT(수원) 키움-삼성(대구)

뒤 주말 선두 NC 다이노스 원정길에 오른다. 가장 먼저 10승을 점령한 다음 1위 일간타자가 일정상 두 차례(28일, 8월2일) 등판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5위 LG 트윈스(36승1무31패)는 하위권인 9위 SK 와이번스(24승44패), 10위 한화 이글스(17승52패)와 맞붙는 일정이다. 다시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약팀들에 확실한 승수를 쌓아야 한다. LG는 올해 한화전에서 9연 전승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삼성에 8-5로 이긴 KIA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성 라이온즈, 롯데, NC도 홈 팬들 은 역시 전체 관람석의 10%로 제한된 이번 주에는 LG, SK, 삼과 조우할 수 있다. 입장 가능 인원 한된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초석 마련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창립'

내일 오후 5시 강진군장애인체육회 본격 출발



강진군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5시에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이사 및 감사 등 22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라 강진군장애인체육회 당원직 회장으로 이승욱 강진군수 및 이사 19명과 감사 2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강진군장애인체육회 규약(안), 사무규정(안), 임원선임(안), 상임부회장 선임 등의 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체육활동 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관

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실무회의 등 사전절차를 추진해왔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에 승인신청 및 인준 후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식 승인을 받으면 명실상부한 장애인체육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창립총회 및 향후 절차 추진에 군이 물심양면 돕겠다. 앞으로 강진군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진군·강진군장애인체육회는 향후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가맹단체 활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장애인 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강진군 장애인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민속씨름단 '영덕 단오장사 씨름대회 2체급 장사'

금강장사 최정만·한라장사 오창록·백두급 2위 윤성민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영덕 단오장사 씨름대회'에 참가하여 한라장사와 금강장사 2체급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먼저 24일 열린 한라장사 결정전에서는 오창록 선수가 경기 양평군청 김보경 선수를 3-2로 물리치고 장사에 등극하였고,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에서 열린 천하장사씨름대회에 이어 개인 통산 4번째 장사에 올라 한라급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이어 다음날 열린 금강장사 결정전에서는 최정만 선수가 강원도 영월군청 김민정 선수를 3-0으로 간단히 제압하고 장사에 올랐다. 특히, 전날 개최된 예선전 16강에서 발목부상을 입고 투혼을 발휘하는 등 개인 통산 11번째 금강장사에 올라 금강급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 펼쳐진 백두장사 결정전에서는 윤성민, 장성우 선수 2명이 8강에 진입하여 윤성민 선수는 4강전에서 백두장사에 오른 기록이 있는 강원도

영월군청 임진원 선수를 2-0으로 제압하고 장사 결정전에 진출하였으나, 충북 증평군청 김진 선수가 3-0으로 아쉽게 패하여 2위에 입상하였다. 한편 25일 개최된 개회식 및 제9회 씨름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천하장사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 등극과 함께 12년간 모범적으로 선수생활을 하며 씨름인들에게 귀감이 된 공로로 장성우 장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로써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지난 흥성 설날장사 씨름대회 이후 6개월여만에 무관중 경기로 개최된 영덕 단오장사 씨름대회에서 2체급을 석권함으로써, 2017년 창단 후 장사 23회, 전국제전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씨름의 역사를 한층 한층 써내려가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2017년 창단 후 지금까지 장사배출을 통한 방송 노출로 영암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등 영암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대한민국 씨름 부흥과 영암군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40m 원더골' 대구 세징야, 베스트골 선정

전북 이승기와 팬 투표 결과 베스트골 뽑혀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대구FC 특급 공격수 세징야의 하프라인 단독 드리블 득점이 6월 베스트골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7일 '세징야가 스포츠음료 브랜드 게토레이와 함께하는 '지 모먼트 어워드(G MO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세징야는 8라운드 수원 삼성과 경기에서 약 40m를 단독 질주해 오른발 슛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다. 당시 세징야는 혼자서 2골을 몰아치며 대구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팬 투표 결과 세징야는 이승기(전북 현대)를 제치고 베스트골 영예를 안았다.

게토레이상 수상자는 매달 두 명의 후보 중에서 100% 팬 투표로 선정된다. 세징야의 시상식은 26일 대구 홈 경기에서 진행됐으며,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팬들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면서 팬 대표의 축하 영상으로 대신했다.

'탱크' 최경주, PGA 시니어 투어 데뷔

31일 PGA 투어 챔피언스 엘리 챌린지 출전

최경주가 16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에서 개막한 미 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첫날 7번 그린에서 경기하고 있다. 최경주는 1R 경기 막판 7오버파 79타로 공동 120위에 이름을 올렸다. '탱크' 최경주(50)가 미국남자프로골프(PGA) 시니어 투어에 데뷔한다.

최경주는 오는 31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의 위윌 힐스 골프&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PGA 투어 챔피언스 엘리 챌린지(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최경주는 지난 5월 시니어 PGA 챔피언스에서 시니어 무대 데뷔전을 치르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

졌다. PGA 투어 챔피언스는 만 50세 이상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최경주는 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최다승 기록도 갖고 있다. PGA 투어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최경주는 26일 끝난 PGA 투어 3M 오픈에서 최종합계 4인더파 28타로 공동 6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와 함께 1970년생 동갑내기 짐 퓨릭(미국)과 마이크 위어(캐나다)도 시니어 투어 무대에 도전한다.

유소연, 한국여자오픈 우승상금 전액 통근 기부

2억5000만원 기부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 나누고 싶다'



유소연이 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우승상금을 2억5000만원을 전액 기부했다. 유소연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소연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회가 치러진 만큼 우승 상금이 꼭 필요한 곳에 뜻 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몇 기부처를 살펴보고 그 결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 메디힐'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1억5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전

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의 방역용품 구입 및 저소득층 검사비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유소연은 사랑의열매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하녀소사이어티' 2367번째 회원이 됐다. 재단법인 메디힐은 미혼모, 학교 밖 청소년, 이주노동자들과 국외 빈민지역 등을 돕는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재단법인 메디힐에 기부한 1억원은 이를 취약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유소연은 재단법인 메디힐과 메디힐 장학재단에 2017년부터 매년 1억원씩 기부하며 4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소연은 그 밖에도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살피며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